

『코스모스』

여전히 요원한 우주

한 장 독후감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써 보려고 하는데, 글이 안 나가더군요. 그래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로 독후감을 시작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를 읽다가 2년 전의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결과를 본 후 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순진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진보와 퇴보 사이의 줄 위에서 균형을 간신히 잡고 있는 존재이며, 진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노력과 기이한 행운이 만나 어찌다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초인을 잇는 줄 위에서 줄을 타는 광대입니다. 그런데 배금과 혐오라는 감각적 자극에 휘둘러 인간됨을 잃었고, 줄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항시 가상 적국의 문화적 하자를 지적하고 그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비이성적 행태를 상정하여 사람이 아직 갖고 있는 파충류의 뇌를 자극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을 파충류적 행동 기제로 물고 가고는 한다. 자국은 상대국과 달리 문화적 하자가 없고, 타국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정복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1980년 핵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던 시기, 칼 세이건이 펴낸 『코스모스』에는 위와 같은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발행된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읽으며, 저는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정치적입니다. 정파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원의 향배를 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입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던 시기 혐오라는 와각지쟁 대신 우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칼 세이건 곁에서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학, 철학, 문화인류학의 교차를 즐기며, 우리가 어깨를 빚진 거인의 족적을 짚어 보고, 이 시리도록 창백한 행성에서 여전히 요원한 우주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추천합니다, 『코스모스』.